

성경에서는 술과 마약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질문: 성경에서는 술과 마약에 대하여, 질병과 죄악으로 쓰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어로나 또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기본전환의 혹은 환각의약 곧 마약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확실히 밝혀진 구절을 찾아볼수 없지만, 그리스어 pharmakeia - 파할마키야 는 이점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을 잘못 사용함으로 정신이 들게 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점에 대한 구절 몇개만 읽어보고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하여 어느정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조사해 봅시다.

예배소서 5:18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것이니... [그리스어로 방탕이 "dissipation-디씨페션" 뜻이 "내어 버리다, 질서없는 생활; 방탕, 나쁜 풍행; 낭비, 난봉"].

잠언 23:21가

술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고린도전서 5: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체라 일컫는 자가 유행하거나 탐험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속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술 금지하라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술 금지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찾아볼수 없습니다. 맥주나, 막걸리나, 혹은 양주일지라도 그것을 마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확실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자가 선택할 일이고 만일 우리중에 어떤 믿음의 형체가 가끔 한 몇잔씩 취하지 않게 즐겨 마시는 것을 보고 "어머나," 하고 잘못믿는 성도라고 취급할 근거가 성경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인생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데살로니가전서 5:6). 첫째는,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만이 하나님을 섬길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부끄럼,"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첨기고자 하는 마음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입니다(베드로전서 5:8). 보통 사탄의 악귀가 사람의 마음을 침입하고, 또 그럼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서 그 생각들을 경건한 생각으로 돌리는 것이며, 또 어떻게 생각을 참으라는 것에 대한 용법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13

그럼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하여 근신[마음을 조종]하여 예수그리스도 외 나타나실때에 너희에게 가져 올 은혜를 온전히 바란찌어다. [KJ. 번역에는 ...가져 올 은혜에 대한 희망의 계시에 온전히 의지하라];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태살로니가전서 5:6-8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자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함[KJ. 번역에는 정신차릴]찌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KJ. 정신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흥 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잠언 23: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행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선택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5절에서는 이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원수, 사단을, 대적하는 것인데, 바로 그가 연구한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공격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들려서 불경건한 생각으로 남치하여, 우리로 경건치 못한 행위를 하게 하고, 결국은 마귀적인 영향을 받아 마귀에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음을 “심장, 가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속 깊이 들어있는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거나 혹 믿지 않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지키서 마귀적인 영향이 그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이로시는 이유는 만약 그것이 우리 속마음에 들어오면, 아주 치독한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4:23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haeart-심장,가슴)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 솔에 몹시 취하면, 사실은, 그의 청신이 나간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킬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가 아주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한 상태에 놓입니다. 술취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기도할수 없고, 섬길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몹시 취해있는 사람은 그가 마음을 열어 파수가 들어오게 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매우 혼잡하게 하거나 혹 자기를 상하게 하거나 혹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마약도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19-21): 하나님께서 이 두가지를 다 금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손상시키며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설킬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특별히 마약에 대하여 기록한 구절을 보기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자한 사람

이 노력하여 찾으면 찾을수 있게끔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짓고있는 모든 죄를 낫낫이 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설명한 책을 쓰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범할수 있는죄는 원 성경시절에는 사람들의 생각에 품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곤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 호색 같은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제 합과 의로 교육 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이 공통적인 교육, 자제로운 사람은 이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LSD-엘에쓰디, crystal meth-크리스도 매뜨, crack-크랙크, crank-크랜크, 등등.. 이러한 마약들은 성경 원시절때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것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나서 그의 사람들을 섬기므로 당연히 정신 차려서 온전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섬길수 있는데, 하다못해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 줄지라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마약을 사용하면 정신 상태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도파”하게 하고 심하게 마시는 술도 이와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자를 보고 사람들이 “방탕한” 정신 나간자라고 부릅니다. 술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마약에 “취하면” 그사람은 “깨어있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많은 마약들은 헛것을 보게 하고, 헛것은 “가짜, 헛믿음, 혹은 헛인상; 방상(그릇된환상); 혹은 잘못된 신념”을 가져 옵니다.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현실이 아닌 것을 행하게 합니다. 성경은 불법약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말로 “복술-witchcraft”을 *pharmakeia*-파마키아, 그뜻은 “마약 사용과 취급하는,” 혹은 “독을 넣는[악으로]” (Thayer's Lezicon사전에), 그리고 또 달리, *pharmakon*-파마كون 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9:2절에 조사해보면 “복용;1회분 혹은 독약”이라고 하고, 이뜻은 술법을 썼다 라고 (Louw Nida Greek Lezicon사전)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 말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말 “복술사-KJ.번역 sorcerer” 또는 “술법- KJ.번역 sorceries”라고 번역 되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9:21, 18:23, 21:8, 22:15)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성경은 거의다 “witchcraft-마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pharmakeia*-파마키아 라는 말도 약을 독약 복용, 술법을 쓸 때, 등등에는 witchcraft-마법, 혹은 sorceries-술법 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보세요 얼마나 혹암으로 나타나 있는가!

갈라디아서 5:19-21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술수-witchcraft [*pharmakeia*-파마키아]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당파심)과

(21) 무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

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를(에서)

유입 으로(을)받지 못할것이요

도취하게 하는 약과 환각을 이르키는 약은 1960년 Haight-Asbury-해일-아스버리 때에 발명된 것 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탄의 무기로 수천년전부터 있었고, 이것들로 인하여 성경적으로 보든지 역사적으로 보든지 수억명의 생명들을 망가뜨린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도취하게 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약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힙니다. 마약은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쇠약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서 잘 유지 함으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오래 오래 섬기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수없이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들의 중독을 체우기 위하여 행하는 죄가, 훔치는데서 부터 죄없는 사람을 살인해서 라도 마약을 “해야” 하게 합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앞에 취하는 죄는 고사하고, 나중에는 거짓말과, 도둑질과, 살인까지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깊게 말해서, 술과 마약을 사용하면 “인생의 참 생활”을 앗아갑니다.

수도없이 많은 중독자들이 평화와 즐거움을 찾는데, “도취” 되게 해주는 마약이 그것을 채워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약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 역할을 한다고 어떤 것을 누군가가 분유해 놓은것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천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삶을 즐기고 거기에 종사 하계끔 만드셨는데, 마약과 술은 그것을 가짜로 보충합니다. 도취하게 하는 약들을 사용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므로 위험하고, 이러한것들로 마음을 마취 시킨다고 해서 고통을 면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것들은 더 큰 고통을 가져 온다는 것이, 중독에서 벗어난 수천명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주 예수님과 가까히 교제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가까히 교제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외에 더많은 즐거움을 그가 채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짜로 우리의 기분을 채울 필요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만양 기쁨과 평화로 차서 다른것들은 전부 “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By Christian Educational Services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

아래 노래 가사는 중독자들을 돋기위하여 쓴 책에서 나온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형상을 만든자 (Image of the Maker)

인생에겐 누구든지 한구석에 텅 빈 마음이 있지만
그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평생 다하여 그 빈곳에 만족을 채우려 하네.
누구나 빈 자기속을 채워야 할 필요성을 습기지 못하므로
어떤이는 성공의 길을 찾아 성취를 하였으나
거기도 만족이 없으므로 그보다 더 많이 원하는걸 모르시나요?
당신은 돈으로 살수 있는 모든걸 사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해 보려지만 거기에도 만족이 없구나.

인생에겐 어태인가 한 조각이 빠졌으므로
항상 우리에게 완전치 못함을 느끼네.
무리가 스스로 그 빠진 조각을 채우려 하나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모르네.
어떤자는 도피를 하고자 하나
그런수도 없는걸 발견하게 된다.
어떤이는 사랑을 찾고 어떤이는 명예를 찾으나
끝장엔는 모두가 같은 느낌이다.

우리 마음에 형상을 만든자가 인을 찍어 놓았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교제가 켜겨 멀어졌고
우리 안엔 사모함만 남아있네.
우리를 만든자 (우리의 형상을 만든자)와 다시 화목하기 전에는
그 만족을 채울길없네.